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복음이 상식이 되는 사회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주장입니다. 상식을 갖춘 사람이길 바라 고 그래서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상식이라 주장하는 책은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당장 사용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지식과 문장들을 선호하는 요즈음 상식이라 칭하는 내용들이 과연 바르고 진실한 것인가 보편적이고 윤리적 결함은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겠다고 돈벌이만을 쫓아 사는 게 상식으로 여겨진다면 도리어 암울하고 윤리적 결함 가득한 몰상식한 사회가 되고 말 테니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두 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리사이들의 위선 너머에 있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하시듯 생과 사를 위한 결단과 순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릇된 하느님 상으로 이끄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과 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새롭게 세워집니다. 바리사이들은 혼인과 이혼에 관 해 남성에게 허락된 특권이요 보편적 상식의 근거로 신명기 24장에 담긴 모세의 율법을 듭니다. 이혼을 허락 하는 율법이 아니라 무질서한 혼인을 금지하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을 악용해 이혼하고 재 혼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렸고 하느님의 뜻과 혼인의 신성함을 제대로 알고 실 천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9) 하느님과 멀어지면 모진 마음이 짝듭니다.

둘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작고 약한 어린이의 마음같이 예수님 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배우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함께 머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 십니다.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성장이나 건강이 좌우되는 것처럼 환경이나 습득한 정보의 차이로 사고의 격차 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제한과 금지라는 단어의 잦은 등장엔 사람과 소통의 시간은 줄었지만 하느님 나라 에 관한 배움과 영적 노력은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마르 10,14)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세는 그 마음입니다.

제54회 군인 주일을 맞아 군선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 립니다. 군종교구에 파견된 마산교구 사제들 가운데 어느덧 제일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사목을 위해 헌신하신 신부님들께 해가 갈수록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다수가 일정한 공간에 서 지내는 군 특성상 부대의 방역지침은 더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목 관할에 속하지 만 주둔지가 다른 신자들은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 외부에 위치한 성당에는 더더욱 신 자들이 방문할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는 가운데 변 화가 필요했고 현재도 노력중입니다. 복음이 상식이 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전역하는 그날까지 맑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최승호 메다르도 신부 | 군종(총용성당)



제 1 독 서 창세 2,18-24
화 답 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 2 독 서 히브 2,9-11
복 음 마르 10,2-16 또는 10,2-12

주일 진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54회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우선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군 복음화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군종사제와 수도자, 군인 가족들, 군종교구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2월 2일 제4대 군종교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큰일났구나.”라는 구절처럼 두렵고 떨리는 이사야의 마음으로 교구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사랑하는 모든 군종교구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 여정에 담대히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군대 안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주교 서품을 받기 전, 군종신부로 그리고 교구 총대리 신부로 오랜 기간 군종교구에서 사목해왔지만, 지금처럼 군 사목 여건이 힘든 경우는 처음 접해 봅니다. 국토방위에 최전선인 군 특성상 모든 군부대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민간사회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군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수시로 강화되는 방역지침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미사를 거행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잠시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대면 종교행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갖 군에 입대한 신병들은 훈련 및 교육부대에서 2~3주 격리되어 예방적 관찰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녀님들과 민간 선교사님들의 부대 출입도 제한되고 있으며 군종신부들 역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장병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훈련병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외에 위치한 성당에는 병사들이 방문할 수 없으며, 영내에 위치한 성당이라도 주둔지가 다른 타 부대의 병사들은 미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한 군 사목의 어려움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는 작년 한 해 동안 3,018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군종교구가 2014년 26,92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에 비하면 약 1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2020년 한 해 한국교회 전체에서 탄생한 20~24세 남성 영세자는 2,616명입니다. 이 중 2,404명이 군종교구에서 탄생한 영세자입니다.(참조:『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이 수치는 군 사목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청년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이에 군종교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군 복음화 사업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교구 홍보국 산하 미디어 제작팀을 조직하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주일미사 및 교리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협력하여 장병 생활관의 IPTV에도 이러한 영상들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군종신부들이 신자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는 오디오북 클럽 ‘신부의 책장’을 제작하여 네이버 오디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군종교구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비대면 시기에도 군인들이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통해 하느님과 교회를 접할 수 있도록 군 복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종교구의 일 년 예산 대부분이 군인 주일에 전국의 신자 여러분이 봉헌하는 2차 헌금에서 마련됩니다. 그리고 군종후원회원 모집 역시 군종신부들의 군인 주일 파견 홍보활동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제54회 군인 주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종신부들을 민간 성당에 파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임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군인 주일 2차 헌금과 군종후원회 회원 모집에 함께해주시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병사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온 교회가 선교하여야 하고 또 복음화 활동은 하느님 백성의 기본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참조:『선교 교령』, 35항)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협력은 분명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지체肢體로써 교회의 선교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종교구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마치 복음서의 제자들이 풍랑 속 흔들리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위를 걸어오시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격려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희망을 가집니다.

이에 우리는 예전처럼 군종사제, 수도자, 선교사들이 자유로이 병사들과 만나 위로하고 친교를 나누며 선교사명을 실천하게 될 날을 희망 속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하느님의 뜻이 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모님께 마음 모아 기도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 어머니시여, 저희에게 당신과 함께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바다의 별이시여,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저희의 길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베네딕토 16세,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50항)

2021년 10월 3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가톨릭교회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는 말씀에 따라, 세례를 통해 부여받은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고 선교사와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1926년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 교회는 1970년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일깨우기 위해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 발전에는 두 가지 독창성이 있었다.

첫째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교리를 깨달아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100여 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도 43년(1784~1794, 1801~1834) 동안이나 성직자가 없었는데도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박해 시대 강원도 시골 교우촌에서 비밀리에 사용되었던 은어隱語가 있었다.

그것은 ‘박 서방’이었다. 이 말은 보통 밀주密酒를 의미했는데, 신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박 서방 있소?”라는 질문을 해, “있소.”라고 대답하면 서로 신자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대화하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며 전교했다.

그런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외국 신부가 미사 중에 강론했는데, 앞 좌석의 한 할머니가 눈물을 자꾸 닦고 있었다. 신부는 자신의 강론에 감동되어 그런 줄 알고 흐뭇해하면서, 미사 후에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가 왜 눈물을 흘렸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앞에 앉아서 신부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옛그제 죽은 우리 집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부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할머니에게 염소 한 마리를 사 주며 위로했다고 한다.

2천여 년 전에 살기를 내뿜으며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사도가 된 바오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all things to all man)이 되었다.”(1코린 9,22)라고 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1코린 9,19-23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바오로 사도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사람처럼 되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자가 되기도 했다.

신앙인은 교회의 근본 사명인 복음 선포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복음 선포, 즉 선교는 박해 시대의 신자들과 외국 신부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는 먼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을 무시하거나, 이기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져야 한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기도 해야 한다.

10월 ‘전교의 달’은 동시에 ‘묵주기도 성월’이다.

1571년 10월 7일 신성동맹神聖同盟 연합군이 이슬람 제국을 상대로 벌인 레판토 해전(Battle of Lepanto)에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당시 교황 비오 5세는 이날을 ‘묵주기도의 날’로 기념하게 했고, 1883년 교황 레오 13세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聖月’로 제정했다.

우리 모두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적당하게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미용사의 이 말에 난 항상 약간의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한다.

“적당히 깎아주세요!”

신기하게도 매번 미용사들은 정말 적당히 깎아준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말이다.

나는 ‘적당히’라는 말이 좋다. 이 말은 그야말로 ‘넘침도 부족함도 없이 알맞게’라는 뜻이 아닌가! 이 말 뜻을 알아준 미용사들이 고맙다. 사실 ‘적당히’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적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을 가리키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충’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 ‘열심히 하지 않고 성의가 없다’는 뜻을 지니기에 더 그렇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적당하다’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정도에 알맞은 적당함이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창세 1,1-31 참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쪽에선 넘쳐서 난리고 다른 한쪽에선 부족해서 난리인 이 세상에서 그 바람은 더욱 간절해진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 답을 찾음에 있어 우리는 먼저 ‘적당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적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적당함을 판가름할 기준 즉 적당함의 이유가 되는 준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적정선’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적당함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적당함의 기준이 되는 그 ‘적정선’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계’라고 일컫는 것들이 아닐까?

우리의 삶,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다. 사실 넘어서야 하고 넘어서도 되는 것은 이미 한계가 아니다. 그런 것은 ‘장애’ 혹은 ‘장벽’이라고 일컫는 것들이다. 우리 삶에 자리하는 장애와 장벽들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몰이해와 차별에서 오는 사회적 장벽들은 도전과 저항 그리고 개혁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다. 그러나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한계는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욥 38,11)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6-17) ‘적당함’이란 주님의 이 말씀에 순명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도를 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를 ‘모세의 돌판’과 우리의 ‘양심’ 안에 ‘계명’으로 새겨 놓으셨다(탈출 34,28; 시편 16,7 참조).

결국 한쪽에선 넘쳐서 난리고 다른 한쪽에선 부족해서 난리인 세상의 이 적당하지 못한 모습은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느님의 창조질서로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순명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들이다. 우리의 신앙은 도를 넘어서는 이 모습을 ‘죄’라고 표현한다(창세 3,1-24 참조).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스러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들이 어디 한둘인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며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져버리는 모습들이 허다하다. 도를 넘는 편리함과 부유함, 도를 넘는 권한과 영광, 도를 넘는 건강함 등이 다 그런 식이다. 마땅히 세 시간은 걸리는 거리를 두 시간으로 단축시키려 그 좋은 산을 허물고, 이미 있는 것도 넘치는데 또 뭔가를 만들어내느라 핵물질을 태우고, 나눠 먹으면 충분히 배부를 것을 나누지 않고도 배불린답시고 유전자 조작을 해댄다. 정직하게 일해서 얻는 적당한 풍요를 넘어 보통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부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고, 봉사하는 권한을 넘어 군림하는 권력을 갖기 위해 약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해버리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구는 보람을 넘어 그저 성적과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영광을 위해 승부를 조작하거나 편법을 동원하고,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실험을 해댄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적당치 않은 모습들이 만연하다.

공생활을 앞두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신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얻는 부유함,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얻게 되는 명성, 악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얻게 되는 힘에 대한 유혹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유혹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다 선을 넘으라는 요구들이다.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돈 없고, 이름 없고, 능력 없는 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로 이루어진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유혹한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유혹이다. 하지만 그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치신다. 예수님은 사람이 도를 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랑은 도를 넘어서지 않고 늘 적당한 모습으로 자리한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악마의 이 유혹을 물리치신다(마태 4,1-11 참조). 이는 뱃속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을 것이다. 임신한 여인은 어머니로서 늘 적당하게 처신한다. 행동거지에 있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려 노력한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다. 이처럼 선을 넘지 않는 우리 삶의 적당함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결국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적당함이란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의 문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내 삶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적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요한 14,23-2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결국은 또 사랑인 거다.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해동(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
1975년 10월 6일

견진성사

일시: 10월 6일(수) 19:30
장소: 거제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10월 10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수산본당 설립 25주년 기념미사

일시: 10월 10일(주일) 10:30
▶코로나로 인해 손님을 맞지는 못하지만,
저희 공동체를 위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52차 선택주말

일시 및 장소: 11월 6일(토) 12:00~18:00
교구청
11월 7일(주일) 12:00~18:00
교구청
11월 14일(주일) 12:00~18:00
북신동성당(마산↔통영 차량 운행)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46차<2016년 11월>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참가비: 3만 원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개인컵 등

신청: 10월 5일(화)까지
문의: 장혜민 리다 010·4288·2698

청년 교리연수(비대면)

일시: 10월 23일(토) 13:00~18:00/
10월 24일(주일) 13:00~16:30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상: 청년, 선착순 15명 마감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 필기구
참여방법: 'ZOOM' 프로그램 접속(연수 전일 'ZOOM' 주소 문자 안내)

신청: 10월 1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위원회/기관/단체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 확진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일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0월 10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2022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22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정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생물(1)
근무예정학교: 해성고
응시원서 및 접수: 10월 25일(월)~29일(금) 09:00~18:00, 5일간
문의: 055·240·8884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성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정 맛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종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소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10. 11.(월)~14.(목)/ 10. 18.(월)~20.(수)
11. 1.(월)~4.(목)/ 11. 15.(월)~17.(수)

■ 한국성지 167 완주
10. 25.(월)~10. 28.(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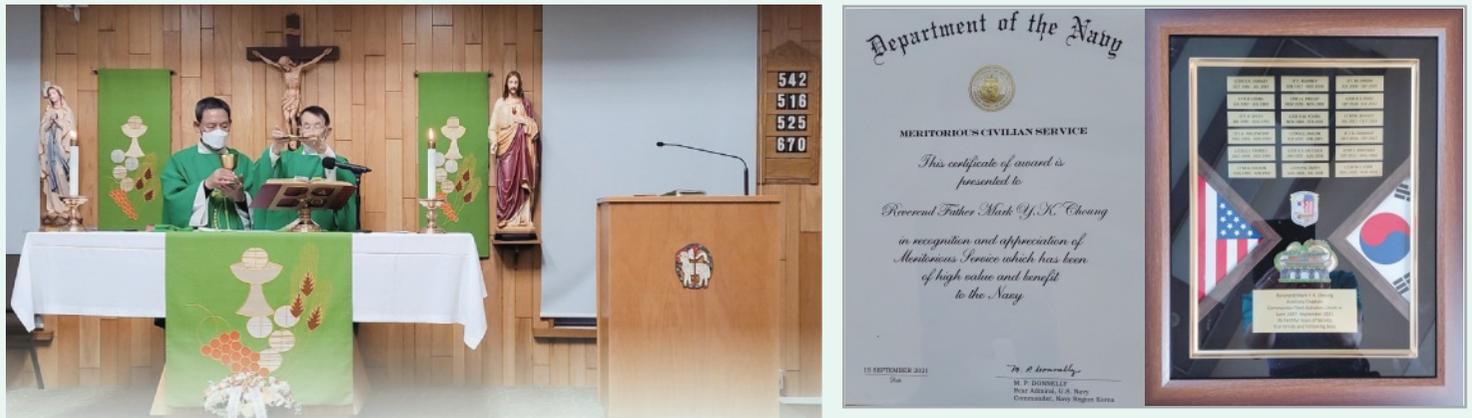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그라츠-섹카우교구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



9월 25일 10시 30분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의 주례로 기념미사를 드리고,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은 1971년 9월 24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두 교구에 내린 하느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한 자매결연의 50년 역사를 정리하여 되돌아보고 관계를 이어가는 앞날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관계를 맺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많은 사제와 신자들은 마산교구 초기에 그라츠교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되새기며 감사하였다.

정영규 신부, 미국 군종사목 35년 은퇴식과 공로상 수상



정영규 마르코 신부(원로사목자)는 9월 19일 오전 주일미사로 그동안 미국 군종대교구 소속 태평양함대 진해지원부대에 서(1986년 10월부터 35년간) 마지막으로 집전하고, 미국 해군 신자 사목을 은퇴하게 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가 방문하여 함께 봉헌하였다. 미사 후 이어진 수상식에서는 미국 해군성에서 명예롭게 수여하는 주한 미국 해군 제독 Admiral Michael Donnelly 장군으로부터 35년 동안 수고한 공로에 대한 감사로 명예시민 공로상(12450호)이 수여되었으며, 또한 미국 군종대교구 Muhm 주교의 포상과 Michael Vasa 진해 사령관의 포상도 함께 수여되었다.

성지여고 졸업생 김정자 자매, 학교발전기금 1억 원 전달



성지여자고등학교(교장: 민창홍 요한) 8회 졸업생인 김정자(세실리아) 자매가 9월 9일 교장실을 방문하여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는 성지여자고등학교 역대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김정자(81세) 자매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지여고 8회 졸업생으로 가난한 집안의 8남매 맏이로 성장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생님이신 수녀님의 도움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힘들게 일하며 자수성가하여 모교 발전과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학업을 통하여 꿈을 실현하고 가능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10년의 계획을 세워 적금을 부어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창홍 교장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학교 단위 공간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모교의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우리가 살아온 시절과 세월은 저마다 다르지만, 마산교구민 모두는 지난 50년의 시간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현재 안에 오롯이 살아 있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힘이 되고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은 하느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두 교구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발간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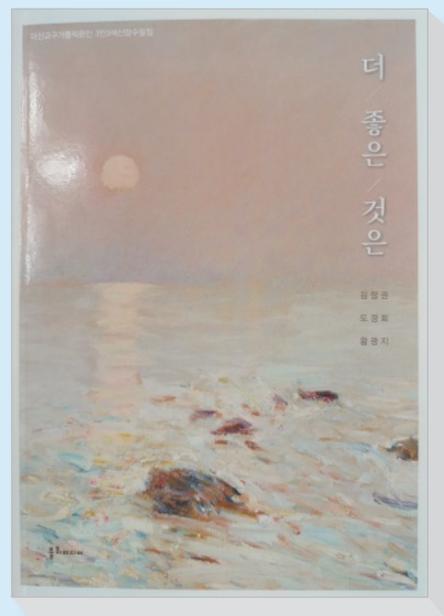
■문의: 교구 사무처 055·249·7016

마산교구가톨릭문인 3인3색신앙수필집

더 좋은 것은

아침 낮 저녁. 하늘의 모습은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듯이, 김정권 시몬, 도경희 스텔라, 황광지 가타리나의 글이 다르듯 같고 같은 듯 다르게 다가온다. 그 글은 어딘가에서 경험한 듯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믿음으로 펼쳐진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색영롱한 무지개처럼 삼인삼색 신앙수필 또한 각기 다른 색의 내용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교구 홍보국장 이상록 신부—



- 출판: 불휘미디어
- 지은이: 김정권·도경희·황광지